에너지세제 개편을 환영하며…

에너지세제는 언제쯤 전면 개편될 것인가? 이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재정경제부를 위주로 정부가 몇년전부터 에너지세제를 개편하겠다고 공표한 지 상당기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세제 개편의 타당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정유 및 에너지기업,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에너지세제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1월9일 또다시 밝혔다. 각종 에너지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2000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한 뒤 7월께부터 산업자원부, 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2001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가 에너지세제 개편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와 함께 에너지 세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양면성이 있다. 등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2000년부터 대폭 인상할 방침인 것이다. 등유 휘발유 경유 등에는 교통세, LPG LNG 등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휘발유에 비해 나머지 품목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재경부의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높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세수가 증가하면 환경, 도로여건 개선 투자와 대중교통 보조금으로 사용되도록 한다는 것이 에너지세제 개편의 기본방향이다. 경유 등유 LPG LNG 세율을 휘발유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거나 소비세를 새로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경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리라고 믿는 에너지 공급 및 소비 관계자는 아무도 없다. 대한석유협회를 필두로 SK, LG칼텍스정유, 현대정유 등이 1999년 중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공급과잉으로 골머리를 앓는 판에 수요억제책을 쓰겠다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아우성이다.

석유협회는 1999년에도 대부분 산업 및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유에 특소세를 부과하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체의 원가부담을 가중시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등 경제전반에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유 1리터에 4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제조업의 연료비 부담은 연간 8000억원이 증가한 4조7000억원에 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중유에 대해 특소세가 부과될 경우 LNG로 수요가 급격히 옮겨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석유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벙커C유의 저가수출 및 상대적으로 고가제품인 LNG 수입증가에 따라 국민경제에 약 3조4000억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유협회는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관세율 차이가 5-10%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전제품과 청량음료 · 스키 · 골프용품 등에 대한 특소세를 감면하면서 세수부족을 산업용 연료의 세금을 인상해 충당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징세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2000-2020년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16.7-22.5달러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원유 세계수요도 2000년 하루 7620만배럴에서 2010년에는 8800만배럴, 2020년 9900만배럴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을 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20-30달러에서 움직일 것이 분명한 현실이고, 최근 2-3년간의 10-15달러에 비해 100% 상승한다고 보았을 때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이다. 금융연구원은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39억5000만달러 감소하고, 물가는 1.95%포인트 상승하며, 경제성장률은 0.68%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가정이나 업소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보면 에너지 절약을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제조업의 에너지 감축도 전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던가. 에너지 가격을 올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지 않고서는 약효가 먹혀들기 어려운 것은 확실해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정유업계의 힘겨루기 결과를 예의주시한다.

화학저널 2000/01/17